

이승은 | 연구원 (제 7321)

- 주요 뉴스: 미국 9월 PCE, 기대치 부합. 12월 금리인하 기대는 증가
 - 유로존, 3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상향 조정
 - 독일 메르츠 총리, 연금법안 통과로 정국 일시 안정
 - 미중 고위 당국자들, 중국과 무역 협정 협력 다짐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9월 근월 PCE 완화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이 영향
 - 주가 상승[+0.2%], 달러화 보합[0%],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12월 FOMC를 앞두고 혼조세
 - 환율: 달러화지수는 9일 연속 하락 이후 보합 마감
유로화 가치는 0.02% 하락, 엔화 가치는 0.1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월 소비자심리 개선으로 상승
독일은 견조한 경제지표와 정국 불안 해소로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71.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3.7원, 0.33% 상승). 한국 CDS 보합

		12/5일	12/4일	전일대비			12/5일	12/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70.4	6,857.1	+0.19%	국채 금리 10y	미국	4.14	4.10	+4bp
	유럽	578.77	578.84	-0.01%		독일	2.80	2.77	+3bp
	중국	3,902.8	3,875.8	+0.70%		영국	4.48	4.44	+4bp
	일본	50,492	51,028	-1.05%		CDS 5y	한국	22	22
	한국	4,100.1	4,028.5	+1.78%	중국		42	43	-1bp
	달러지수	99.0	99.0	0.00%	위험 지표	EMBI+	-	272	-
유로화	1.1642	1.1644	-0.02%	VIX		15.41	15.78	-2.34%	
환율	엔화	155.33	155.10	-0.15%		WTI유	60.08	59.67	+0.69%
	위안화	7.0711	7.0717	+0.01%		원자재	구리	538.2	529.15
	원화	1,468.8	1,473.5	+0.32%	금		4,197.8	4,207.6	-0.2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9월 개인소비지출, 전월비 정체. 12월 금리인하 기대는 증가

- 9월 실질 개인소비지출(PCE)은 전월대비 0%로 정체하며 부진한 흐름. 8월 수정치는 0.4%에서 0.2%로 하향 조정. 연준이 물가 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근원 PCE는 +0.2%(mom), +2.8%(yoy)으로 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모습
- 소비지출 둔화는 자동차, 의류 등의 상품 지출이 5월 이후 최대폭 감소한 데 기인. 한편, 명목 서비스 지출은 0.4%(mom) 증가했는데 이는 주식시장 랠리로 부를 축적한 고소득 가계가 주도한다는 분석. 노동시장 부진과 관세 부담으로 K자형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Goldman Sachs 등)
- 경제학자들은 소비지출의 약세와 근원 PCE의 완화로 연준이 12월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CME FedWatch : 25bp 인하 가능성 87.2%). Fitch의 미국경제 분석가는 완만한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둔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
- 한편, 1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11월 51→12월 53.3으로 5개월만 상승했고,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12월 4.1%(11월 4.5%)로 하락. 다만 현재 경제 상황은 11월 58.6→ 12월 51.1로 평가가 하락. 미시건대 조사 디렉터는 전반적인 소비자 의견이 우울하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유로존, 3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상향 조정

- 유로존의 3분기 GDP 성장률은 0.3%(qoq) 증가하며 예상치(0.2%) 및 속보치(0.2%)를 상회. 관세 혼란에도 견조한 노동시장이 민간 소비를 뒷받침했으며 낮은 차입 비용으로 기업 지출이 증가. 경제의 회복력에 따라 ECB가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평가(Bloomberg)
- 특히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10월 공장주문은 전월대비 1.5% 증가하여 예상치(0.3%)를 큰 폭 상회. 9월 수정치는 1.1%→2%로 상향 조정. 항공기, 선박, 군용 차량 등 운송 부문에서의 대형 주문이 87% 급증한 것이 주요인

■ 독일 메르츠 총리, 연금법안 통과로 정국 일시 안정

- 독일 메르츠 총리의 연립 여당(기민당-기사당-사민당)은 과반(316석)을 겨우 넘는 319표 찬성으로 연금법안이 가결되며 집권 7개월만의 정부 붕괴 위기에서 극복. 법안 통과로 단기적 불안은 해소되었으나, 향후 복지 지출 축소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둘러싼 분열이 이어질 가능성

■ 미중 고위 당국자들, 중국과 무역 협정 협력 다짐

-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 허리핑 부총리와 무역 협력을 논의.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10월 합의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이건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

■ 인도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확대

- 인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 채권 매입으로 유동성 \$111.4억을 공급한 데 이어, 은행권에 \$50억 규모의 외환 스왑으로 자금 투입. 중앙은행 총재는 인도 경제가 '드문 골디락스 시기(rare goldilocks period)'에 있다며 건조한 거시경제 여건 덕분에 향후 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
- 아울러 중앙은행은 FY26년 GDP 성장률을 6.8%에서 7.3%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6%에서 2%로 하향 조정

■ EU 6개국,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폐기 촉구

- EU 6개국 정상들은 배출가스가 나오는 차량 판매를 금지한 EU 규칙의 개정을 앞두고 2035년 이후에도 일부 내연기관 기반 친환경 기술을 허용할 것을 촉구. 한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금요일 중국 방문에서 전기차의 유럽 생산 기반 보호를 위해 전기차에 대한 유럽 우선권을 지지한다고 발언

■ 캐나다, 노동시장 강세로 향후 금리인상 기대 확대

- 캐나다 11월 고용은 +5.36만명으로 큰 폭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6.5%(예상치 7%)로 '24.7월 이후 최저치 기록. 기대를 뛰어넘는 노동시장 강세에 시장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내년 10월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확대

주요 경제 지표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현지시간 기준)

- 12월 FOMC 회의(10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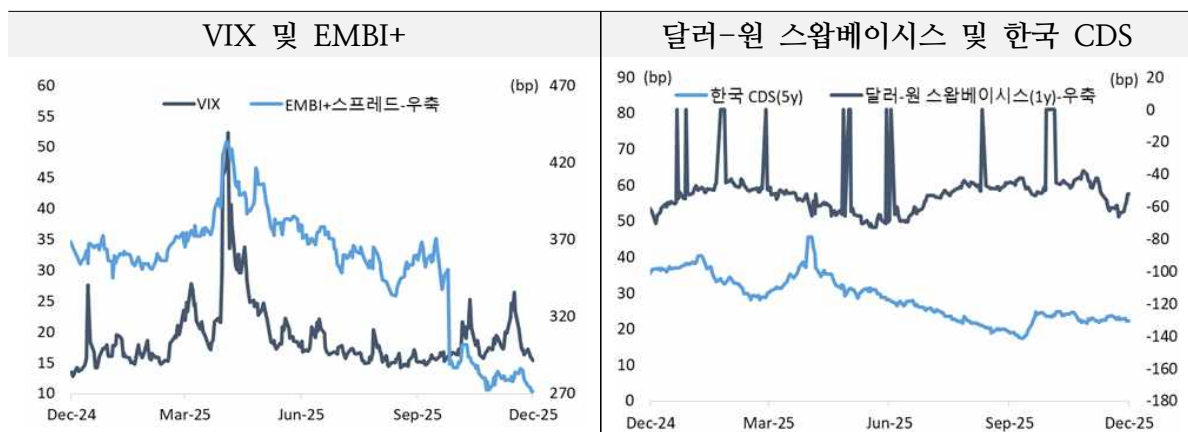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7, E-mail selec@kcif.or.kr